



“꿈을 안고 장성군으로” 제64회 전남체전 ‘팡파르’

18일 개최식... 오는 21일까지 4일간 ‘스포츠 대장정’

23개 종목 금·은·동메달 985개... 선수단 6950명 참가

장성군 최초로 개최되는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18일 개최식과 함께 4일간 ‘스포츠 대장정’에 돌입했다. 김은숙 가야금 병창, 송경배 대금 연

주, 장성군 청소년 동아리 ‘하랑’밴드의 시전 공연에 이어 시작된 본식에선 시군 선수단 입장이 이목을 끌었다. 장성군은 주경기장에 들어선 시군 선수단이 완만하게

설치된 경사로를 따라 무대 중앙까지 차례로 이동하는 신선한 연출을 선보여 객석의 호응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어서 개최 선언과 대회기 게양, 체육인현장 낭독, 선수·심판대표 선서, 주제 공연 등의 식순이 진행됐다.

개회식의 정점은 스타디움 ‘성화 점화’였다. 김다빈 바둑선수, 온은신 씨 다자녀

가족, 김미주 조정선수, 재경·재광 향우회장에 이어 최종 주자인 장성 출신 유튜브 감스트(본명 김인지)와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의 손에 성화가 전달됐다. 감스트와 김 감독은 무대 중앙에 설치된 성화대에 함께 불을 붙이며 200만 도민 화합과 성공 체전을 기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환영사에서 “은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전남체전이 전남을 하나 되게 하고, 체육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멋진 승부를 겨루고 우애를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아모르파티’ 김연자, 김태연, 린, 지오디(god) 손호영·김태우, 정동원의 흥겨운 축하무대와 멀티미디어, 댄스, 불꽃놀이, 300대의 드론이 화려하게 어우러지는 폐회공연이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전남체전 최초로 선보인 ‘드론쇼’에선 제64회 전남체전, 장성군 도시브랜드 ‘성장장성’, 장성군 캐릭터 ‘성장·장성이’, ‘2025 장성 방문의 해’ 등 개최식을 총망라하는 이미지를 밤하늘에 표현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64회 전남체전은 18일부터 21일까지 육상, 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궁도, 태권도, 배드민턴, 복싱, 유도, 볼링, 수영, 자전거, 검도, 사격, 골프, 바둑, 역도, 농구, 당구, 족구 23개 종목 시합이 펼쳐진다. 볼링과 사격을 제외한 모든 시합이 장성에서 열리며 메달 규모는 금메달 283개, 은메달 283개, 동메달 419개 총 985개다.

22개 시군 선수단 규모는 총 6950명에 달한다. 장성군은 체전 기간 관람객 포함 2만여 명이 장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성/황해연 기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체조·족구 경기 완도서 열린다

17개 시도 선수·임원 등 2천여명 참가, 성공 개최 준비 박차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다.

완도군에서는 체조와 족구 두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지난 대회를 기준으로 두 종목의 선수·임원 등 2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7개 시도의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전남생활체육대축전과 전국소년체전 역도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청해진스포츠크터와 공설운동장의 시설 안전 점검과 개보수를 마무리했으며, 대회 기간 중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선수단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 기간 전후로 완도군에서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 수산물 축제 등이 개최되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다.

완도/장성우 기자



영광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개최

영광군 대표 선수단의 선전과 건승 기원

영광군(군수 장세일)과 영광군체육회(회장 정병환)는 4월 18일 오전 11시, 영광구청 광장에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영광군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영광군 선수단은 23개 종목, 총 340여 명의 선수와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장성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결단식에는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 정병환 체육회장과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 경과 보고, 결단사, 선수 대표 선서 순으로 영광군의 명예를 걸고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정병환 회장은 결단사를 통해 “선수단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영광군의 저력과 단합된 힘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영광군체육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일 군수는 “영광군을 대표해 출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특히 전남체전 기간 동안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함평이와 함께하는 함평 나비대상

함평 제27회 나비 대축제

2025 4. 25. 금 - 5. 6. 화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KIA 김선빈, 윗입술 봉합 수술 완료... 턱·치아 등엔 이상 無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선빈이 다행히 큰 부상은 면했다.

김선빈은 지난 1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이날 KIA 관계자는 “김선빈은 어제 출동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윗입술 안쪽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KIA 측은 “봉합은 깔끔히 마무리됐다”며 “추가 검진 결과 턱과 치아 등에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기 6회초 무사 1루에서 기습번트를 던 김선빈은 1루를 향해 전력으로 뛰다가 1루 베이스 커버를 들어 가던 2루수 박계범과 강하게 충돌했다.

전날 기습번트 후 두산 박계범과 강하게 충돌해

‘3G 3패’ 선발 윤영철, 2군행... 임기영 1군 콜업

곧바로 KIA 트레이너와 의료진이 김선빈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쓰러진 김선빈은 한동안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스스로 일어난 김선빈은 입에 거즈를 문 상태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김선빈은 지난 5일 왼쪽 종아리 내측 근육 손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바 있다.

전날 13일 만에 1군 엔트리에 등록되며 부상 복귀전을 치렀으나, 또다시 부상을 당하는 불운을 겪으며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한편 이날 KIA는 좌완 투수 윤영철을 1군 엔트리에 선발했다.

윤영철은 올 시즌 3경기에서 5%인 14실점(10자책점)을 기록 평균자책점 15.88로 부진했다. 승리 없이 패배만 세 차례 쌓았다. 전날 두산전에도 선발로 올라 2%인 2실점으로 조기 강판되며 패전 투수에 올랐다.

윤영철의 빈자리는 우완 임기영이 채웠다. 임기영은 4월 퓨처스(2군)리그 6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4.82를 기록 중이다. /뉴스